

스린구(士林区)

여행국가 중화민국(타이완)

여행도시 타이베이

여행기간

2019년 2월 9일 ~ 2019년 2월 13일



스린지역

지열곡 - 국립고궁박물관 - 스린야시장

단수이 여행을 마치고 고속 MRT를 타고 베이터우 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지열곡으로 향합니다. 온천수 온도가 높아 온천 물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베이터우 역에서 지열곡까지 택시비는 약 100달러 조금 넘고 거리는 1.5km 정도라서 걸기에도 애매한 곳 그래서 택시를 탔다.

지열곡 입구 온천수에 익힌 계란등을 많이 팔고 있는데요! 그럼 이젠 사진으로 지열곡 풍경을 전합니다.

지열곡(地熱谷)









지열곡 구경을 마치고 타시 택시를 타고 베이터우 역으로 가서 스린역까지 MRT를 타고 갑니다.
다음 목적지가 고궁박물관

역시 여기서도 고궁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합니다. 물론 노선 버스도 있겠지만 귀차니즘으로 쉽게 갑니다.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 같고 4명이 이동하는 거라서 MRT를 주 이동수단으로 하고 나머지는 택시를 부가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나름 간편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스린역에서 국립고궁박물관 까지는 직선거리 2.5 km 이곳 박물관이 유명한게 장계석 총통이 국공 내전 와중에도 문화제에 대한 애착이 많아서 국보급 문화재를 지키려는 노력을 한 탓이랴나요? 뭐 그렇다는 군요.

그럼 여기도 구경을 한 번 해봅니다.

국립고궁박물관(台北 國立故宮博物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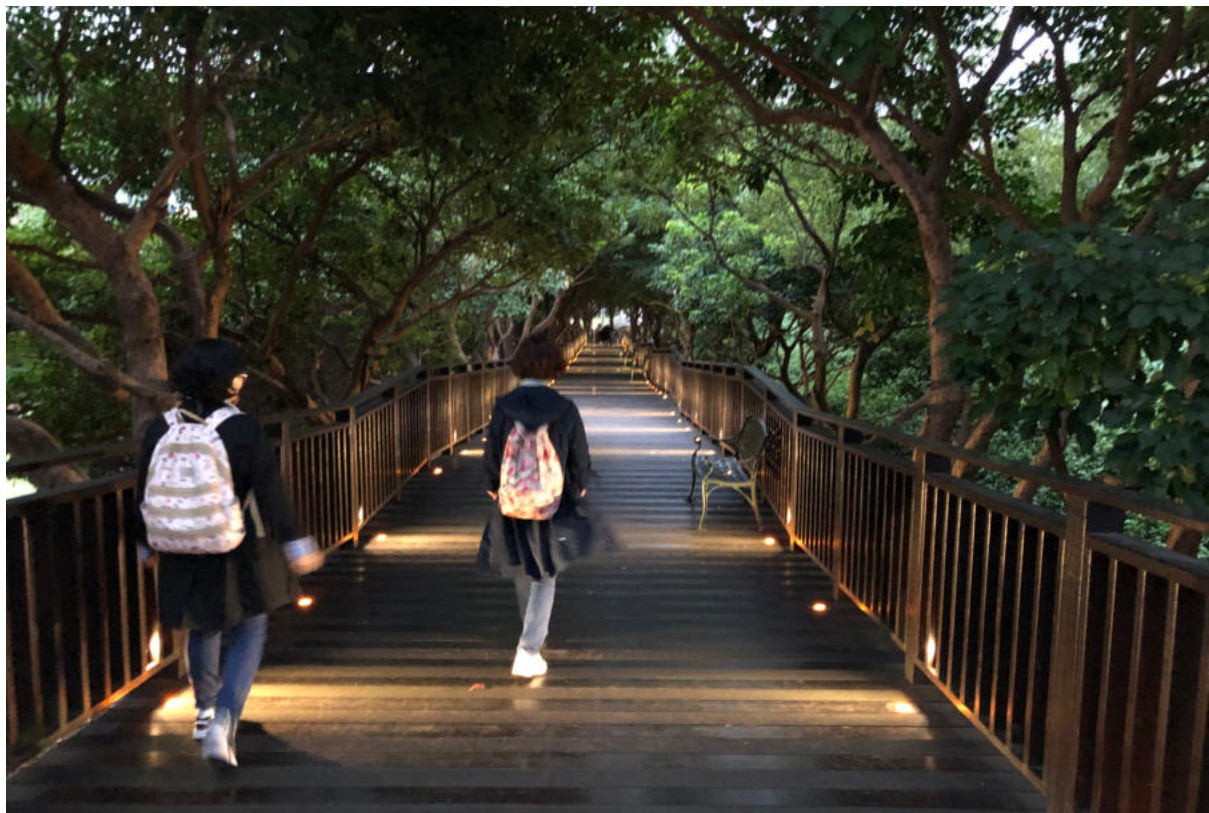


Canon EOS 5D Mark II ISO 400 f/5.6 1/80 EF 24-105mm f/4L IS USM 2019 2 10 2 3 6:10:28 25 6°6'45" N 121°



Canon EOS 5D Mark II ISO 400 f/5.6 1/125 EF 24-105mm f/4L IS USM 2019 2 10 2 3 6:11:34 25 6°6'45" N 121°







고궁박물관 관람 후 스린 야시장으로 이동

스린 야 시장은 타이베이시의 가장 큰 야시장으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한 쪽은 전통 양명 영화관 주변으로 대남로 자성궁 일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한 쪽은 스린시장 쪽으로 집중적으로 간식거리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다. 지하철 쟈탄(검담)역 출구에서 정면으로 나오면 즐비하게 늘어선 가게들이 눈을 사로 잡는다.

스린 야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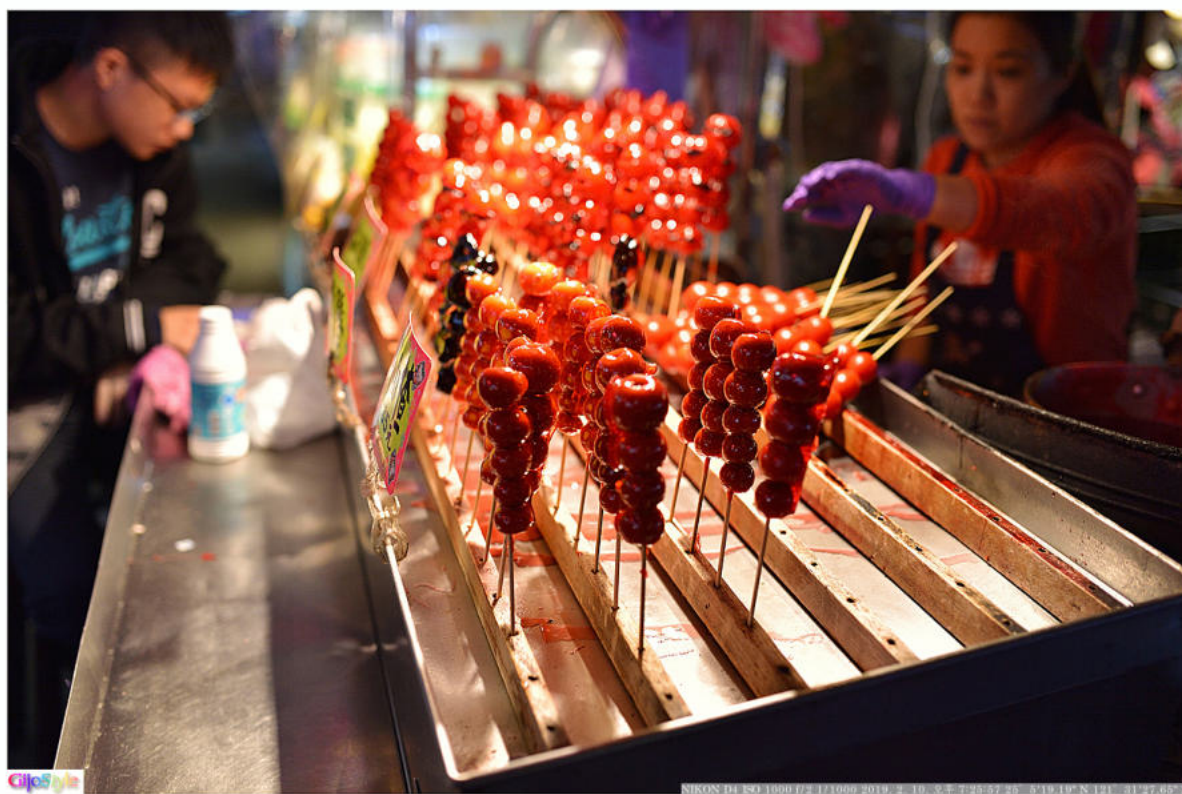
아! 여기도 중국에 뒤지질 않네요! 수 많은 인파 속으로~~











NIKON D4 ISO 1000 f/2.8 1/1000 2019. 2. 10. 22:57:25 5°19'10"N 121°31'47.65"E





낚시로 잡은 생선을 요리해주는 재미있는 가게



야시장 바로 앞에 있는 검단역



오늘 일정 여기서 마무리

집 아니 숙소로 송~~